

現實參與 教授는 떠나야 한다

吳 河 根

(山光大 國語教育科)

남산 밑 먹적골에 사는 許生은 어느 날 畵주립에 지쳐, 바가지를 끊는 아내의 등쌀에 못이겨 글읽기를 기약한 십 년을 다 채우지 못함을 크게 탄식하면서, 世上으로 나온다.

대학교수는 學問과 敎育의 두 영역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에 세속적인 관직이나 재물이 따르지 않는다. 오직 고독한 인내만이 요청될 뿐이다. 맹자는 仁義의 도에 사는 사람을 大丈夫라 칭하면서 부귀도 그의 뜻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도 그의 뜻을 움직이지 못하며, 완력도 그의 뜻을 굴복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이 大丈夫가 학자와 교육자가 추구해야 할 규범이요, 참된 大學教授像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소위' 대학 교수라 하여 이들을 격리 수용

하고 '이른바' 상아탑에만 주저 제한할 수는 없다. 이들은 감냥에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갈고 닦은 지식을 단순히 학생들에게 전수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에 나가 직접 이를 활용시키기를 꾀하기도 한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 이론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한다.

물론 교수직을 세상에 나가기 위한 過渡期로 가늠하는 이들도 있다. 대학은 그들에게 학자의 전문성과 교육자의 양심과 은둔자의 참신성까지를 出世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마련해 준다. 대학은 그들에게 그만큼 복된 자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대학에서 補職을 좇아 학내 정치를 주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예사이다. 그들에게

는 이미 御用이라는 레테르가 붙기도 한다.

그들에게 대학은 出世의 실험장이다. 그들에게 연구실은 분장실이거나 별장이거나 플랫폼이다. 그들은 분장실을 떠나 무대에 서거나, 별장을 떠나 본가에 돌아가거나, 플랫폼을 떠나 출세의 길에 나서야 한다. 그들은 사이비 교수일당정 사이비 출세인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떠나야 한다.”

우리는 비록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허생의 출세를 탓하지 않는다. 아내의 불평도 정당한 것이고, 허생의 수용도 정당한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의 앞날을 축복할 뿐이다.

세상에 나간 허생은 빈 부자에게서 만 냥을 빌려 전국의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하여 열 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다. 허생은 이 돈으로

변산의 도둑 무리를 일본 근처의 두인도에 이주시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귀가한다. 이때 북벌 계획에 여념이 없던 이완 대장은 이를 도모하고자 허생에게 정책을 요청한다. 이에 허생은 11의 망명객과 종친 말과의 결혼, 12의 북중과 동승 수용 및 교역 등을 통한 정보 활동 등 계획을 제시하나, 용납되지 않자 이완을 질타한다.

우리는 상당 수의 대학교수가 정치나 행정에 뛰어들었으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음을 안다. 5·16 쿠데타 직후 군사 지도자는 총칼을 뒤로 숨기고 교수들을 앞세워 정치와 행정에 참여시켰으나, 그들이 한 것은 공화당 사전 조직과 시행착오이었을 뿐이다. 유신헌법과 5공 약법의 기초와 시행에도 상당 수의 교수가 동원되었다. 아부게 씨는 정당 대표로까지 추대되었으나, 정치판에 실컷 농락당하고 뒤로 물러났다.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란 말이 한때 유행된 적이 있다. 그들은 전문성과 양심과 참신성을 담보로 벼슬과 재물을 탐하다 불명예만 안고 배에로 노릇을 그만두었다.

허생은 철저한 현실 인식 아래서 현실에 참여하였다. 그 자신이 백성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점매석으로 경제를 교란시켜 재물을 모았다. 북벌 정책의 건의에 있어서도 철저히 현실주의를 택했다. 종친과 양반의 허위적인 권위 의식을 불식하고 비열할 정도로 현실에 야합하여 머리를 쥐고 호복을 입혀 청나라에 벼슬과 장사길에 나서기

를 주장한다. 상투는 남만의 풍속과 무엇이 다르며, 흰옷은 상복과 무엇이 다르냐고 통박하기도 한다.

이는 일종의 마키아벨리즘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와 경제는 학자의 理想論단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허생은 체면치레를 비리고 스스로 친한 장사꾼이 되었고, 집권층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층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

이완은 달리 계교를 묻고자 그 이튿날 다시 먹적골 허생의 집을 찾았으나, 그때는 벌써 주인 없는 빈집에 바람만 쓸쓸한 뿐 허생의 자취는 찾을 길이 없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나는 현실참여를 위하여 떠났던 교수가 다시 강단에 돌아오는 것을 반대한다. 물론 이들의 복귀를 위하여 이 참여 기간을 휴직 처리하는 것 역시 당연히 반대한다.

우선 현실참여 교수 자신을 위하여 이를 반대한다.

그들의 복귀에의 바람은 결국 그 참여가 失敗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그 참여가 社會奉仕를 명분으로 할지라도 어떤 일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면, 또다른 일이 그의 앞에 놓여질 것이고 당국은 유능한 그를 대학에 복귀하도록 그냥 놓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실패는 그들의 참여에의 결단이 잘못되었음을 뜻한다.

專門人으로서의 교수는 현실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政界·官界·財界에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공자나 맹자가 천

하를 떠돌면서 왕들을 설득한 것도 벼슬을 위한 것이 아니라 政策 제시의 수준이었다. 허생 역시 이완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수행했을 뿐이다.

그러나 직접 현실에 참여한 교수는 이에 머물지 않고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 든 이틀이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가 가는 뜻은 검은 까마귀가 흰 까마귀로 바뀌게 하기 위함이다.

강단을 떠나 세상에 나가는 것은 '이웃집 나들이'가 아니다. 호랑이 굴에 가서 호랑이를 잡지 못하면 오히려 호랑이에게 먹혀야 한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가서 까마귀를 희게 하지 못하면 되레 백로가 검게 된다. 정책 제시는 그것이 채택되건 말건 별 상관 없이, 이의 실천에는 위험이 따른다.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타인의 권유에 따라 함부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休職制의 보장은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킨다. 여차하면 호랑이 굴이나 까마귀 싸우는 골을 탈출하여 대학에 다시 숨을 수 있다. 이 휴직제는 安全瓣 구실을 하는 것이다.

현대는 철저한 分業의 시대이다. 이 분업을 위하여 대학에는 온갖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대학교수는 이 많은 학과 중 한 학과에 소속되어 있다. 사실 교수는 그 한 학과의 온갖 과목 중의 한 과목의 전문인일 뿐이다. 그것도 이론가일 뿐 실천가가 아니다. 사람이 정치적 동물·경제적 동물

이러지만, 이 극히 일부분의 이론가가 정계·관계·경제계에 진출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다. 이 모험을 휴직제도는 單純 實驗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이제 교수는 연구실을 떠나 세상에 나가서 직접 실험할 수 있다. 실험에 실패하더라도 대학에 복귀하면 그만이므로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권력층의 요청에 의하여 성장과 안정 위주의 경제 정책을 실험한다. 체육관 대통령을 실험하고 전국구 비분 방식에 의한 안정세력 확보를 실험한다. 여기에서 한 자리 얻어 할 수도 있다. 이때 모르모트는 國民이다. 이 모르모트의 생명에 이상이 있으면 모르는 체 대학에 돌아와 君子然하면 되는 것이다.

실험 대상물이 자신일 수도 있다. 이때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실험 과제이다. 현실에 적절히 적응하면 좋지만, 적응력이 부족해도 상관없다. 적당한 때 실험을 중단하면 그만이다. 호랑이 굴에 가서 호랑이가 무서우면 줄행랑을 치면 그만이고, 까마귀 싸우는 굴에 가서 까마귀가 흰빛을 시샘하면 뺨소니치면 끝난다. 이 脫出을 휴직제가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반의 자식된 도리로 오랑캐의 옷을 입고 오랑캐같이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증친의 딸된 체면에 떠들썩이 명나라 장사치와 결혼을 안 해도 좋다. 그래서 교수 출신 현실참여자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어

정정하게 된다. 그는 교수인지 정치가인지 행정가인지 기업인인지, 이론가인지 실천가인지, 현실론자인지 이상론자인지, 밥인지 죽인지, 긴가 민가, 이도 저도 되고 이도 저도 안 될 수 있다. 이는 휴직제의 過剩保護가 빚어낸 결과이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시인이자 정치가가 정치를 하는 시대는 현대가 아니라 신화의 시대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휴직제라는 안전판 대신 背水の陣이 필요한 것이다. 학자의 양심을 걸고 변신했으면 그것은 위대한 변신이어야 한다. 자신이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실험을 거쳐 만들어 낸 완제품이어야 한다. 이미 세상에 뛰어 들었으면 그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살아 남아야 한다. 연구실에서 세상을 기웃거리듯 세상에서 연구실을 기웃거리서는 안 된다. 이들은 이미 교수도 아니고 현실참여자도 아니며, 어중이 떠중이일 수밖에 없다. 실험에 의하여 이런 어중이 떠중이를 만들지 않으려면 休職制는 廢止되어야 한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야 한다.

이 휴직제는 이들을 소환해 가는 政·官·財界에도 필요불가결한 제도이다. 사실은 당국의 필요에 의하여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 필요한 때 이들을 고이 모셔가고 필요가 다할 때 이들을 고이 보내드리기 위해서, 썩먹을 때 이들을 끌어가고 버릴 때 이들을 내쫓기 위해서 이 제도는 아주 적절한 것이다. 이는 호출과 원

대복귀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당국은 이 제도로 해서 책임을 벗고 체면치레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차라리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야 현실에 참여한 교수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도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현실참여 교수가 사랑하는 대학을 위하여 이를 반대한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대학은 현실과 극과 극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상아탑이란 현실과 아주 먼 거리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코끼리는 죽음에 임박하면 아무도 모를 정도로 깊고 깊은 산중에 있는 조상의 묘를 찾아 거기 쓰러져 죽는다고 한다.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는 象牙가 쌓인다. 이것이 상아탑이다.

대학과 사회는 다르다. 대학은 순수의 장이고 사회는 비순수의 장이다. 대학은 순수해야 하지만 사회는 비순수일 수밖에 없다. 참여자는 이에 의하여 사회의 모략과 증상, 아침과 배신, 권모와 술수, 부정과 불신, 공격과 방어, 혈연과 지연, 관권과 금권, 적과 동지를 배워야 했고 또 배웠다. 이들의 복직과 함께 이 非純粹를 대학에 移入해서는 안 된다.

대학과 사회의 양면에 통달한 분,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분으로 이들이 추앙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中庸은 극과 극의 融合이지 갈등은 아니다. 사회에서의 실천의 실패는 대학에서의 이론의 성공과 葛藤을 빛을 뿐이지 융합되지 않는다.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간 지족 선사는 '십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을 되뇌이며 해탈의 길을 단념했다. 왜 사랑과 구도의 길은 공존할 수 없는가? 이는 葛藤構造이기 때문이다. 대학과 사회도 역시 그런 것이다.

학자가 정치가로 출세했다는데는 혹 있을 수 있지만, 정·관·재계의 인사가 학자로서 大成했다는 예는 없다. 더구나 양쪽을 기우거리면서 넘나든 사람은 양쪽에서 다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사회참여에 의한 權力과 金力에 대한 회구는 인간의 공통된 욕구이지만, 學問의 길은 외롭고 고달픈 따름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참여를 마치고 대학에 복귀하려는 이들은 대부분 參與의 失敗者이다. 이들은 스스로 이를 마친 것이 아니라 他意에 의하여 마침을 당한 이들이다. 그것은 임명권자에 의한 축출일 수도 있고 국민에 의한 심판일 수도 있다. 이들이 쉽게 대학에 복귀할 수 있게 휴직제를 존속시켜야 할 것인가? 가령 어느 교수가 휴직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고 하자. 그는 물론 교수라는 경력을 가장 크게 부각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낙선했다. 국민은 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심판했지, 낙선 후에 대학으로의 복귀 여부를 심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

편으로 이는 그의 교수로서의 경력이 심판 대상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분이 이제 모든 것을 훌훌 털고 교육자적 良心을 가지고 대학에 복귀할 수 있는가? 학생들은 이런 교수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훌훌 털었다 해서 그에게서 사회의 비순수의 냄새가 가실 수가 있을까?

이들이 현실에 참여하는 데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강한 자부심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이는 정책 제시의 차원으로는 부족하므로 이를 직접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발로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실패하고 대학에 복귀하는 것은 앞서의 강한 증거가 다시 발동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도 경제도 행정도 '나 아니면 안 되고', 학문도 교육도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유아독존을 대학은 수용해서는 안 된다. 만 입을 쫓아 달아났다가 의지가 지 없어 돌아 온 옛 입을 고이 맞이하는 것이 한국적인 미풍양속이 아니다.

대학도 어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世代交替가 필요하다. 대학도 권위만을 먹고 사는 곳은 아니다. 기존의 학문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학문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참신성을 무기로 권위를 타파하기 위하여 사회에 나갔다면, 대학에 남겨진 그들의 자리 역시 참신한 후

진에게 물려 주어야 하는 것이 정한 이치이다. 남의 자리도 내 자리도 모두 내가 차지하려는 발상은 지나치게 利己的이다. 사회의 물갈이를 위하여 새로운 사람이 들어간다면, 대학의 물갈이를 위하여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휴직제에 의한 '자리 보존' 때문에 대학이 겪는 고통은 여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敎授不足에 허덕이는 대학이 자기 일은 못하면서 남의 일을 위하여 일손을 빌려 주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꼴이다. 대학은 물론 품팔이 일꾼을 불러다가 학생들의 수업 공백을 적당히 메우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휴직제가 초래하는 것이다.

사회참여를 위해서 나서는 이들은 과감히, 아니 너무나도 당연히 대학을 떠나는 것이 본인이나 대학을 위하여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하여 현명한 길이다. 대학교수의 사회참여 기간 동안의 휴직제도 역시 폐지되어 마땅하다.

허생은 어디로 갔는가? 그의 정책 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그의 집조차도 떠나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